

## 마태복음과 토라<sup>1)</sup>

양용의\*

그리스도인의 신학과 삶에서 토라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초대 교회 이래로 수없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sup>2)</sup> 아직도 확고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과 토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신약성경에는 이 주제들을 다루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구절들을 각각 살펴보고, 그 구절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작업은 방대하며, 따라서 이 작업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본 소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그 방대한 작업의 한 시발점으로서, 그 구절들 중 몇몇 결정적인 것들(예, 마 5:17-20, 21-48;

---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본 소고는 ‘토라’ 특집의 한 부분으로 작성된 관계로 이 주제와 연관된 필자의 여러 논문들과 책들의 내용을 종합한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본 소고는 토라에 대한 마태복음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본 소고에서 다루는 다양한 본문들에 대한 필자의 보다 상세한 논의들을 보려면 Y.-E. Yang, *Jesus and the Sabbath in Matthew's Gospel*, JSNTS 1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06-274[한국어판: 양용의, 『예수와 안식일 그리고 주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서울: 이레서원, 2000), 159-420]; 양용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21-48의 대조적 교훈들에 나타난 예수와 율법,” 『신약연구』 4 (2006), 1-49; idem, “율법의 성취자 예수. 종말론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마태복음 5:17-20 연구,” 『교회와 문화』 19 (2007), 25-54 등을 참조하라.
- 2) 이 문제는 일찍이 순교자 유스티우스(Justine Martyr)와 유대인 트리포(Trypho) 사이의 대화에서도 주요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Justine, *Dialogue* 10.2-3을 보라.

7:12) 을 제공해 줄뿐더러,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마태복음에 집중하려고 한다.

마태복음은 우선 예수님과 토라의 관계,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율법의 권위와 기능을 신약의 어떤 다른 구절들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연결된 두 교훈(5:17-20, 21-48)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소고는 이 교훈들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교훈들 외에도 토라를 요약해 주는 단락들(7:12; 22:34-40), 완전 주제 단락들(19:16-21; 5:48), 토라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된 단락들(안식일: 12:1-14; 정결 규례와 음식법: 15:1-20; 나병환자 정결 규례: 8:1-4; 십일조: 23:23),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관련된 구절들(23:2-3)도 예수님과 토라의 관계 내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토라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 구절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한정된 지면 때문에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토라에 대한 마태의 입장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sup>3)</sup> 첫째, 마태와 그의 공동체는 토라를 지키는데 헌신되어 있었는가(예수님과 토라의 연속성)?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토라를 완전히 대체했다고 생각했는가(예수님과 토라의 불연속성)? 둘째, 마태는 토라 안에서 도덕법과 의식법을 구분하고 있는가? 그리고 도덕법의 유효성은 받아들이면서 의식법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마태는 토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가? 만일 일관성이 있다면 그 일관된 태도는 무엇인가? 본 소고를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이 질문들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소고는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지는 않으며, 마태의 토라에

3) 토라에 대한 마태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에 대한 유용한 개요가 W. R. G. Loader,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A Study of the Gospels*, WUNT 2/97 (Tübingen: J. C. B. Mohr, 1997), 137-154에 나타난다.

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는 가운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 1. 열쇠 단락-5:17-20

토라에 대한 마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5:17-20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 단락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단락은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데 가장 난감한 문제들 중 몇 가지를 포함하며, 그래서 이 단락과 관련된 수많은 제안들과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sup>4)</sup>

### 1.1. 구약성경의 성취자 예수님(5:17)

‘너희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는 도입구는 기독교 공동체 내의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공동체 밖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sup>5)</sup>

---

4) 예, H. Hübner, *Das Gesetz in der synoptischen Tradition: Studien zur These einer progressiven Qumranisierung und Judaisierung innerhalb der synoptischen Tradition* (Witten: Luther Verlag, 1973), 15-39; R. Banks, *Jesus and the Law in the Synoptic Tradition*, SNTSMS 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204-226; J. P. Meier,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48*, AnBib 7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6), 41-124; W. R. G. Loader,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A Study of the Gospels*, 165-182; J. D. Charles, "Garnishing with the 'Greater Righteousness': The Disciple's Relationship to the Law (Matthew 5:17-20)," *BBR* 12 (2002), 1-15; P. Foster, *Community, Law and Mission in Matthew's Gospel*, WUNT 2/177 (Tübingen: J. C. B. Mohr, 2004), 144-217.

5) H. D. Betz, *Essays on the Sermon on the Mou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40.

복음서들에서 ‘엘톤’(ἤλθον, ‘내가 ~왔다’)이라는 어휘는 자주 ‘구속사의 놀라운 대단원을 도래케 할 종말론적 인물의 선교’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sup>6)</sup> 아마도 본 절에서도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된 것 같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유대교적 어구이다(참조, 마카베우스 2서 15:9; 행 24:14; 롬 3:21 등). 11:13에서 마태는 동일한 어구를 (역순으로) ‘예언하다’(προφητεύειν) 동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선지자들 뿐 아니라 율법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것’을 내다보는 예언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sup>7)</sup>

17절(그리고 아마도 본 단락 전체)의 핵(核)은 의심할 여지없이 ‘플로레사이’(πληρωσαι) 동사다. 하지만 이 동사의 해석은 어렵기로 유명하며, 그 결과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다음은 그 중 중요한 것들이다. 1) 율법의 진정한 의미, 정신, 의도, 혹은 기본적 원리들을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명백히 하다.<sup>8)</sup> 2) 율법의 요구들을 순종하거나 실행하다. 또는 율법에 말하여진 바를 행함으로써 실현시키다.<sup>9)</sup> 3) 율법의 영속적인 유효성을 확증하거나 세우다.<sup>10)</sup> 4) ‘가득히

6) J. P. Meier,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18*, 66-69. 인용은 69에서 온 것임.

7) R. T. Franc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NTC (Leicester: IVP, 1985), 114.

8) 이는 널리 퍼져 있는 해석으로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 왔다: 예, A. H. McNeile,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Indices* (London: Macmillan, 1915), 58; M. Dibelius, “Die Bergpredigt” (1937, 1940), *Botschaft und Geschichte* (Tübingen: Mohr, 1953), 125; J. Lambrecht, *The Sermon on the Mount: Proclamation and Exhortation*, GNS 14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1985), 84; 유사하게 D. A. Hagner, *Matthew 1-13*, WBC 33a (Dallas: Word Books, 1993), 105-106.

9) 이러한 해석은 T. Zahn, *Das Evangelium des Matthäus* (Leipzig: Deicher, 1903), 210-213에 의해 제안된 이래로 약간씩 다른 형태로 일단의 주석가들에 의해 채택되어 왔다. 예, A. Schlatter, *Der Evangelist Matthäus: Seine Sprache, sein Ziel, seine Selbständigkeit* (Stuttgart: Calwer Verlag, 1959), 153-154; U. Luz, *Matthew 1-7*, W. C. Linss, trans. (Edinburgh: T. & T. Clark, 1990), 264-265.

채우다.’ 곧, 구약성경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취하다.<sup>11)</sup>

물론 이들 중 어느 한 해석이 본 절의 ‘플레로사이’ 의미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마지막 제안이 아래의 이유들 때문에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sup>12)</sup> 1) 70인역에서 ‘플레로사이’는 시종일관 ‘말레’(למל)를 번역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끝까지) ‘가득 채우다’,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2) 마태복음에서 이 동사의 각 용례마다 직, 간접적으로 성경의 성취에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마도 본 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선지자들’이 ‘플레로사이’의 목적어로 나타난다는 점 역시 우리의 선택을 더욱 지지해 준다.<sup>13)</sup> 하지만 이 마지막 제안은 첫째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sup>14)</sup> 구약의 궁극적 목표 달성은 실제로 토라의 원래 의도와 근본 원리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 10) 문제의 동사가 아랍어 ‘쿰’(كُم)을 반영한다고 하는 추정에 기초하고 있는 이 해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예, G. Dalman, *Jesus-Jeshua: Studies in the Gospels*, P. L. Levertoff, trans. (London: SPCK, 1929), 57-61; D. Daube,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Judaism* (London: Athlone Press, 1956), 60-61; D. A. R. Hare, *Matthew,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3), 47.
- 11) 이러한 해석은 J. P. Meier,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48*, 41-124, 160-161에서 아주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다음 학자들도 채택하고 있다. R. Banks, *Jesus and the Law in the Synoptic Tradition*, 203-235; D. J. Moo, “Jesus and the Authority of the Mosaic Law,” *JSNT* 20 (1984), 3-49; R. T. France, *Matthew - Evangelist and Teacher* (Exeter: Paternoster, 1989), 191-197; W. D. Davies and D.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3 (Edinburgh: T. & T. Clark, 1988, 1991, 1997), 486-487.
- 12) 다른 해석들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는 필자의 “Jesus, Fulfilment and Law in Matthew 5.17-20: A Discussion Focusing on the Eschatological Dimension,” M. A. dissertation (London Bible College, 1992), 27-29를 보라.
- 13) R. A. Guelich, *Sermon on the Mount* (Waco: Word Books, 1982), 140.
- 14) R. E. Menninger, *Israel and the Church in the Gospel of Matthew*, American University Studies VII, Theology and Religion 162 (New York: Peter Lang, 1994), 107.

그런데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를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참조, 5:32, 34, 39).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가능성을 일축하신다. 예수님의 구약 성취가 율법을 초월하는 측면을 갖기는 하지만, 그것은 폐하는 것과는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하는 것은 율법의 의도와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의 목표를 철폐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취는 율법의 의도와 원리를 완전한 형태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물론 때때로 율법의 ‘성취’와 ‘폐함’ 공히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무효로 한다는 현상적 유사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궁극적 결과는 이처럼 정반대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에서 토라 문제는 ‘구속사, 예언적 성취, 종말론, 고도(高度)의 기독교론의 문제다.’라는 마이어(J. P. Meier)의 제안은 타당하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순종의 구심점’으로서 토라의 지위를 대신한다.<sup>15)</sup> 하지만 이는 토라의 규범적 성격이 본 단락 안에서 여전히 고려되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18, 19절). 그러나 그 규범적 성격마저도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구원 시대의 도래자로 오신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의 구도 안에’ 설정되고 있다.<sup>16)</sup> 그렇다면 17절의 ‘플레로 사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특히 토라를 성취한 그분의 교훈이 토라 자체가 의도했던 바와 여전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의 요소를 포함하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토라를 성취한 그분의 교훈이 이제 토라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불연속성’의 요소를 포함한다.<sup>17)</sup> 아래 논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결론이 뒤따라오는 절들(18-48절)과

15) J. P. Meier,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48*, 88-89.

16) R. A. Guelich, *Sermon on the Mount*, 142.

17) R. Banks, *Jesus and the Law in the Synoptic Tradition*, 210.

다른 율법 관련 구절들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 역시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준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 1.2. 율법의 지속적인 유효성(5:18)

‘율법’(τοῦ νόμου)의 지시 대상은 우선 토라인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마태의 관심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토라로 좁혀지고 있는데, 이 초점은 뒤따라오는 절들에서 계속 지속된다. ‘일점일획’(ἰώτα ἐν ἡ μία κεραία) 구절은 가장 세부 사항까지 미치는 토라의 양적 전체성을 강조해 준다. 그렇다면 ‘토라로부터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 전체는 토라의 손상될 수 없는 전체적 유효성을 확증해 준다. 하지만 이 확증은 중앙 주절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두 ‘헤오스’(ἕως, ‘~까지’) 종속절들에 의해 한정되고 있다.<sup>19)</sup>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ἕως ἂν παρέλθῃ ὁ οὐρανὸς καὶ ἡ γῆ) 구절은 ‘결코’라는 의미의 통속적 과장법일 수도 있고,<sup>20)</sup> 특정 시한(時限)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sup>21)</sup> 전자의 용법이 현 문맥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sup>22)</sup> 이러한 판단이 옳다면,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18) A. Sand, *Das Gesetz und die Propheten: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Evangeliums nach Matthäus*, Biblische Untersuchungen 11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1974), 33-36.

19) 『한글 개역』/『개역 개정』의 번역은 매우 아쉽다.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가 애매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다음과 같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20) E. Klostermann, *Das Matthäusevangelium*, HNT 4, 2nd ed. (Tübingen: Mohr, 1927), 41; U. Luz, *Matthew 1-7*, 265-266;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115.

21) W. D. Davies, “Matthew 5:17, 18,” *idem*, *Christian Origins and Judaism*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2), 60-65; R. A. Guelich, *Sermon on the Mount*, 144.

수 있다. ‘율법은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 그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토라의 전체적 유효성은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 확고히 보장된다. 그렇다면 그 유효성이 보장되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έως ἄν πάντα γένηται)에서 ‘모든 것’은 아마도 토라(또는 구약 전체)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예언된 ‘메시아적 사건들’(참조, 마 11:13)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전 생애’, 곧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sup>23)</sup> 그런데 마태복음의 구조상 예수님의 시대가 그분의 탄생으로부터(참조, 1:18-25) (부활까지가 아니라) 재림까지(참조, 24:36-25:46; 28:20) 포괄한다는 점을 주목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기간 역시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속절이 지칭하는 시한(時限)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성취된 ‘이미’의 측면과, 그분의 재림 때 완성될 ‘아직’의 측면을 공히 포함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예수님의 성취에 비추어 본 토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또는 ‘초월성’) 사이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긴장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 준다. 예를 들어, 프랑스(R. T. France)는 율법의 성취 결과 생겨나게 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의 긴장이 ‘권위’와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곧, 예수님의 성취 결과 토라의 ‘기능’은 이미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었지만(참조, 마 11:12-13),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토라의 ‘권위’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이다.<sup>24)</sup>

22) 하지만 우리가 둘째 가능성을 취하더라도, 본 구절은 그 자체로서 시한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두 번째 ‘헤오스’ 절에 의해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23) J. P. Meier,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48*, 60-64.

24) R. T. France, *Matthew-Evangelist and Teacher* (Exeter: Paternoster, 1989), 196.

결론적으로 18절에 따르면, 마태에게 토라는 구속사의 제한된 기간 동안 그 유효성을 갖는데, 그 기간의 끝은 이미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사역과 더불어 도래하였지만, 그 완결은 아직 그분의 재림을 내다보고 있다.

### 1.3. 계명을 버림/행함(5:19)

본 절은 18절과 접속사 ‘그러므로’(οὖν)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이는 추론적 접속사로서 본 절이 18절에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절 해석의 열쇠인 ‘이 계명들’(τῶν ἐντολῶν τούτων)은 18절의 ‘율법’(νόμος)을 지칭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계명들’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8절에 대한 위의 해석에 따르면, 구속사의 선상에서 19절의 ‘계명들’의 지시 대상은 성취-이후 시기에 속하는데 반해, 17-18절에서 ‘율법’의 지시 대상은 명백히 성취-이전 시기에 속한다. 여기서 17-18절의 ‘노모스’(‘율법’)가 19절에서 ‘엔톨라이’(‘계명들’)로 바뀐 변화를 주목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마태는 그러한 지시 대상의 변화를 암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휘를 바꾸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면 ‘이 계명들’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토라’<sup>25)</sup>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토라’를 지칭한다. 이 ‘성취된 토라’란 옛 토라가 내다보았던 ‘새 토라’이고,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사역에 의해 이미 성취된,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의해 완성될 때까지 제자들에 의해 지켜질 것이 아직 기대되는 ‘메시아적 토라’<sup>26)</sup>다. 바로

25) 곧, 성취-이전 시기에 속하는 17-18절 ‘노모스’의 지시 대상.

26) 참조, B. Gerhardsson, *Memory and Manuscript: Oral Tradition and Written Transmission in Rabbinic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NU 22, E. J. Sharpe, trans., 2nd ed. (Lund: Gleerup, 1964), 327; Pace G. Barth, “Matthew’s Understanding of the Law,” G. Bornkamm, G. Barth, and H. J. Held, eds.,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in Matthew*, P. Scott, trans. (London: SCM, 1963),

이 때문에 제자들이 토라의 모든 계명들, 심지어는 가장 작거나 가장 덜 중요한 계명까지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의해 이미 성취된 의미로 (참조, 5:21-48) 아직 그분의 재림을 내다보면서(참조, 5:29-30; 28:20),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19절 전체의 사상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두 쌍의 조건절들과 귀결절들은, 토라(곧, ‘메시아적 율법’)의 가장 사소하고 덜 중요한 사항들까지도 순종하느냐 아니면 체쳐두느냐가 하나님께서 완성될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판가름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 이처럼 본 절은, 18절에서 진술된 예수님의 성취에 비추어 이해된 ‘토라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잘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본 절은 18절과 더불어 마태 공동체 내의 율법 경시론적 경향에 대한 경고로 의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1.4. 더 나은 의(5:20)

본 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앞으로 완성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하신다.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적대자들을 대표하는 두드러진 인물들이다. 그들의 종교는 율법주의와 외식으로 특징지어지고, 그 결과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책을 받는다.<sup>27)</sup>

본 절의 핵심은 ‘너희 의’(ὁμῶν ἢ δικαιοσύνη) 구절이다.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질문들 중 하나는 그 비교가 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양적인 것인가이다. 21-48절의 대조적 교훈들에 비추어 볼 때,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들과

---

153-159.

27) 마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대한 필자의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Y.-E. Yang, *Jesus and the Sabbath in Matthew's Gospel*, 134-138을 보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많은 행동을 요구하며, 따라서 양적으로 더 나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 질적 차이에서 발견된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가능케 된’ 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sup>28)</sup> 이 통치 관계는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의는 자기 스스로 이룬 자기(自己)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반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의는 메시아와의 관계를 결여한 자기 의로 귀결된다.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나은 의’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 시발점을 두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그 목표점으로 삼는다. 또한 제자들의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의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더 나은 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자기 의’보다 질적으로 더 우월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순종하는 행동, 곧 완전을 이룬다는 점에서(참조, 5:4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의론적인 의보다 양적으로 더 우월하다.

마태가 율법 경시론과 율법주의라는 이중적인 적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19절과 20절에서 마태가 문제를 다루는 바에 따르면, 20절의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19절의 율법

28) J. P. Meier,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48*, 109-110.

경시론에 대한 경고보다 훨씬 더 신랄하다. 하지만 좋은 제자는 19절과 20절의 상호 보완적 경고들에 대해 공히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율법 주의 뿐 아니라 율법 경시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다. 좋은 제자는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 도래케 된 하나님의 통치의 필연적인 결과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도 곁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열쇠 단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마태복음의 다른 토라 관련 구절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본 단락 이해의 타당성과 마태의 토라에 대한 입장의 일관성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 2.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5:21-48

5:21-48과 5:17-20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17-20절에 대한 위의 결론들의 타당성은 이 대조적 교훈들에 적용됨으로써 확증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태의 토라 이해가 과연 일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 모두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공유하는 도입 형식구는 첫째와 넷째 대조적 교훈들에서 그 완전한 형태를 띤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여진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다’(ἤκούσατε)는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통상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sup>29)</sup> 그런데 회당에서 토라가 보통 해석된 형태로 읽혀졌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sup>30)</sup> ‘너희가 들었다’ 내용에는 토라 자체와 더불어 해석적 요소도 부분적으

29) U. Luz, *Matthew 1-7*, 278 등.

30) D. J. Moo, “Jesus and the Authority of the Mosaic Law,” 18.

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형식구 전반부의 실제 비중은 두 번째 동사 ‘(그것이) 말하여졌다’(ἐρρέθη)에 실려 있다. 사실 형식구 후반부의 동사 ‘내가 말한다’(λέγω)의 대칭을 이루는 동사는 ‘너희가 들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말하여졌다’이다. ‘(그것이) 말하여졌다’는 신적 수동형으로서<sup>31)</sup> 시내 산에서 말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그것이 주어진 ‘옛 사람들’은 시내 산 세대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형식구의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역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 세대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해석과 더불어) 들었다.’ 이처럼 본 형식구가 서기관들의 토라 해석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주된 초점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토라 자체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결론은 17-20절 전체의 핵심 논점이 토라의 성취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지지를 얻는다.

형식구 후반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ἐγὼ δὲ λέγω ὑμῖν)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교훈들을 토라에 대한 서기관들의 해석이나 이해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토라 자체와 대조시킨다. 또한 이 형식구 후반부는 예수님의 제자들(‘너희’)을 시내 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옛 사람들’)과 대조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들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대조적 교훈들을 각각 고찰해 봄으로써 적절히 답변될 수 있다.

## 2.1. 첫째, 둘째, 여섯째 대조적 교훈<sup>32)</sup>

31) G. Dalman, *Jesus-Jeshua: Studies in the Gospels*, 66; A. Schlatter, *Der Evangelist Matthäus: Seine Sprache, sein Ziel, seine Selbständigkeit*, 165; H. D. Betz, *Sermon on the Mount,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15. 만일 이 동사가 사람을 주어로 갖는다면 그 주어가 명시되었을 것이다.

32) 이 세 대조적 교훈들은 다른 세 대조적 교훈들에 비해 토라를 폐지하는 문제와

2.1.1. 첫째 대조적 교훈(5:21-26)

‘살인하지 마라’(21절 상)는 십계명 중 제6계명(출 20:13; 신 5:18)을 인용한 것이다.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21절 하)는 출애굽기 21:12과 레위기 24:17 등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토라는 살인 행위 자체를 정죄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적 교훈은 살인 행위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살인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욕설까지도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 요건이 된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나은 의는 단순히 율법주의적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 제자들의 내적 성품과 태도가 철저하게 바뀌어 이루어지는 의다.

첫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적 특징은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토라의 살인 금지 계명(21절)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제자들에 대한 그 계명의 유효성을 인정하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토라 사이에는 분명 연속성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 금지에서 훨씬 더 나아가, 분노라는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로까지 내면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감정과 말의 문제로까지 확대하신다(22절).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의 요구를 진전시키는 요소를 갖는다.

2.1.2. 둘째 대조적 교훈(5:27-30)

‘간음하지 마라’(27절)는 십계명 중 제7계명(출 20:14; 신 5:18)을

---

관련해서 보다 덜 문제시되기 때문에 함께 분류되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세 대조적 교훈들에서는 율법이 확증되고 있는데 반해, 다른 세 대조적 교훈들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이 율법을 무효화시킨다. 이와 유사한 분류는 J. P. Meier,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48*, 135-161에서도 발견된다.

인용한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적 교훈은 간음 행위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여자’<sup>33)</sup>를 보고 마음에 정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 행위 자체나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신다. 예수님께서서 율법을 성취하신 결과, 제자는 실제로 간음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정욕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적 특징 역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토라의 간음 금지 계명(27절)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제자들에 대한 그 계명의 유효성을 인정하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토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음 금지에서 훨씬 더 나아가, 토라의 요구를 내면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히 하신다(28절).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의 요구를 진전시키는 요소를 갖는다.

### 2.1.3. 여섯째 대조적 교훈(5:43-48)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43절 상)는 레위기 19:18을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부가적 구절인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토라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이 아니며 토라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아마도 이 구절은 신명기 7:2; 23:3-6 등과 같은 구절들에 대한 당시 서기관들의 해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IQS 1.3-4; 9.21-22).<sup>34)</sup> 토라는 이웃 사랑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토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신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데 마음의

33) 헬라이어 ‘귀네’(γυνή)는 보통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본 문맥에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R. T. France, *Matthew*, 121; U. Luz, *Matthew 1-7*, 296; H. D. Betz, *Sermon on the Mount*, 233; J. Nolland, *Matthew*, 236; 참조, 출애굽기 20:17. 다른 견해는 D. Hagner, *Matthew 1-13*, 120을 보라.

34) D. Daube, *Rabbinic Judaism*, 56.

내적 태도와 관심이 중요하다. 그 사랑은 제자가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도 그의 최선의 삶을 진정으로 열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44절). 원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제자들의 특성인 내적 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깨어진 관계도 허용되지 않으며,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은 완전함이 기대될 뿐이다(48절; 참조, 레 11:44-45).

여섯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적 특징은 약간 복잡하다. 우선 예수님은 이웃 사랑 규정(43절 상)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제자들에 대한 그 계명의 유효성을 인정하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토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토라의 사랑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시고 철저히 하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의 요구를 진전시키는 요소를 갖는다. 한편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인들의 해석(43절 하)은 전면 거부하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토라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 해석적 전통에는 엄매이지 않으신다.

#### 2.1.4. 결론

이들 세 대조적 교훈들은 토라의 문자적 의미는 약화시키지 않으면서(연속성), 그 계명들을 내면화하고, 강화하고, 철저화하고, 확장하여, 토라의 요구를 진전시키는 요소를 갖는다. 이처럼 이 대조적 교훈들은 예수님의 토라 성취(5:17)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잘 예시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이 교훈들은 토라의 원래 의도와 근본 원리를 이끌어 내어, 토라가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한다. 그런데 토라의 목표를 성취한 이 철저한 요구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옛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는 것들이다. 이 요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것들로서, 메시아 예수님과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곧, ‘너희’)에게만 주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하는 이 철저한 요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하라.’(5:48).

## 2.2. 셋째, 넷째, 다섯째 대조적 교훈

### 2.2.1. 셋째 대조적 교훈(5:31-32)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어라’(31절)는 신명기 24:1의 의역(意譯)이다. 신명기 24:1은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서 ‘부정한 것’(ערוה רבה)<sup>35)</sup>을 발견한 경우 이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마태복음 19:4-9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토라와 예수님의 교훈 사이의 관계에 좀 더 많은 빛을 던져 준다. 19:8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실상 그분의 제자들과 관련하여 토라의 이혼 규정을 무효로 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창세기 2:24에 계시된 결혼의 첫째 원리로 돌아갈 것을 교훈하신다. 하지만 첫째 원리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의 교훈이 신명기 24장의 이혼 규정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각 계명에는 각각에게 적절한 기능이 주어져 있다. 창세기 2:24은 결혼에 대한 하나

35) 예수 당시 이혼 허용 조건인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샴마이 학파는 ‘부정한 것’을 성적 죄에 한정시켰는데 반해, 힐렐 학파는 남편의 어떤 불평의 원인이든지 ‘부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m.Git. 9.10; 참조, Strack and Billerbeck, *Kommentar* I, 313-315. 여하튼 신명기 24:1에서 ‘부정한 것’은 ‘간음’을 의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간음에 대한 형벌은 이혼이 아니라 사형이기 때문이다(신 22:22). 참조,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305, 특히 각주 3.

님의 이상적인 뜻을 진술하는 기능을 하고, 신명기 24:1-4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그 이상(理想)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취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이상적인 뜻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첫째 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신다. 옛 시대를 위한 조치가 그들에게 더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sup>36)</sup>

셋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적 특징은 앞 소단원에서 살펴본 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특징과 상당히 구별된다. 예수님의 교훈은 신명기 24:1-4의 이혼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하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와 토라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이 신명기 24:1-4을 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신명기 24:1-4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창세기 2:24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줌으로써, 제자들이 그 원래 뜻에 따라 그 율법 규정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라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7)</sup>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와 진전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속성을 갖는다.

### 2.2.2. 넷째 대조적 교훈(5:33-37)

33절은 토라의 교훈들을 요약해 놓은 것들이다(‘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레 19:12; ‘주님께 한 너의 맹세를 지켜라’, 민 30:2; 신 23:21-23). 토라에서는 맹세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명령되기도 하였다(예, 출 22:7-10; 민 5:19-22). 다만 거짓 맹세는 금지되었는데, 이러한 금지는 진실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34-37절에서 예수님은 맹세를 철저히 거부하심으로써 토라의 맹세 규정들을 무효화하

---

36) D. A. Hagner, *Matthew 1-13*, 125.

37) 이에 반해, 신명기 24:1-4을 폐한다는 것은 그 제한 규정(‘부정한 것’)에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처럼 ‘폐함’과 예수님의 ‘성취’ 사이에는 문자적 규정을 무효화한다는 유사성이 있지만, 그 결과는 정 반대임을 주목해야 한다.

신다. 하지만 이러한 무효화는 토라의 맹세 규정들을 반박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맹세 규정들은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던 ‘옛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절대적 진실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맹세 규정들이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결과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 대조적 교훈의 진정한 초점은 맹세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진실한 맹세에 관한 토라 규정의 궁극적 목적인 절대적 진실성에 맞추어져 있다.<sup>38)</sup>

넷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적 특징은 셋째 대조적 교훈의 경우와 유사하다. 예수님의 교훈은 토라의 맹세 규정들을 무효화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와 토라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이 토라의 맹세 규정들을 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맹세 규정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목표인 절대적 진실성을 이루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와 진전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속성을 갖는다.

### 2.2.3. 다섯째 대조적 교훈(5:38-42)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38절)는 출애굽기 21:24, 레위기 24:20 등을 인용한 것이다. 토라는 보복을 허용하되 그 한계를 엄격히 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토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보복의 한계에 대한 토라의 규정들을 뛰어넘어, 보복 자체를 포기하는 무저항을 요구한다.<sup>39)</sup> 예수님의 이 명령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보복법이 궁극

38) 참조, J.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I. The Proclamation of Jesus*, J. Bowden, trans. (London: SCM, 1971), 220.

39) D. A. R. Hare, *Matthew*, 55.

적으로 목표하였던, 무한한 용서와 원수 사랑의 원리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저항 명령은 토라의 보복법을 폐하거나 반박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복법의 궁극적 목표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그 규정 자체를 무효화하고 초월함으로써<sup>40)</sup> 그것을 성취한다.

이처럼 다섯째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취적 특징 역시 위의 두 교훈들 경우와 유사하다. 예수님의 교훈은 토라의 보복법을 무효화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와 토라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효화는 그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토라의 동일보복 원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없는 용서와 무저항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지, 토라의 보복 억제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섯째 대조적 교훈은 토라의 보복법의 문자적 한계를 초월하여, 그 궁극적 목표인 한없는 용서와 무저항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토라를 성취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와 진전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속성을 갖는다.

#### 2.2.4.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세 대조적 교훈들은, 자주 제안되어 왔던 것과 달리, 토라와 상충되거나 그것을 폐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sup>41)</sup> 이 교훈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논제들로 대변되는 토라에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원래 뜻을 드러내 보여 주고, 제자들의 관심을 그 본래 뜻에 집중시키도록 해 준다(진전을 포함하는 연속성). 하지만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토라의 특정 계명들을 무효화시키거나 무시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불연속성). 왜냐하

40) R. Banks, *Jesus and the Law in the Synoptic Tradition*, 199.

41) 이 대조법들이 율법을 폐하는 요소를 포함한다고 제안하는 학자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R. Mohrlang, *Matthew and Paul: A Comparison of Ethical Perspectives*, SNTSMS 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44, 각주 121을 보라.

면 그러한 규정들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옛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조항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토라 성취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결과 옛 시대를 위한 계명들은 그들에게 더는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절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결혼 관계에서 영속적인 일체성, 절대적인 진실성, 그리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무저항적인 태도일 뿐, 그보다 못한 그 어떤 것도 아니다(48절). 바로 이것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원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이다(20절).

### 2.3. 종합: 열쇠 단락과의 관계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는 다음 결론들을 제안해 준다. 1) 1.1.에서 제안되었던 ‘플레로사이’의 의미는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이 예시해 주는 성취의 전반적인 그림과 조화를 이룬다. 2) 예수님의 성취에 나타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18절)는 다음 두 가지 사실들에 의해 잘 입증된다. 첫째,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 모두가 토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계시해 보이기 위해, 그것들을 초월하고, 무효화하기까지 함으로써, 그것들을 이미 성취하였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토라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둘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에 드러난 성취된 형태의 토라를 지킬 것이 아직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토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3) 19절의 ‘이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메시아적 토라’라고 제안했는데, 예수님의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은 이 성취된 메시아적 토라의 훌륭한 실례(實例)들이다. 4)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은 20절의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예수님의 교훈들은 더 나은 의가 토라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

키는 양적 진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수반되는 질적 진전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다른 구절들

열쇠 단락(5:17-20)과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5:21-48)을 제외하고도 마태복음 안에는 토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보여 주는 몇몇 주요 구절들이 있다. 본 장(章)에서는 이 구절들을 주제에 맞추어 자세한 석의 없이 검토해 나갈 것이며, 그러는 가운데 위에서 도달한 결론들이 이 구절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마태의 토라 이해가 복음서 전반에 걸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3.1. 토라와 완전함(19:16-21; 참조, 5:48)

19:16-21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21절)은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20의 ‘더 나은 의’는 ‘완전함’ 그 자체이다(5:48). 따라서 영생(곧, 하늘 나라=하나님 나라, 참조, 23-24절)을 소유하기 원하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함’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당연하다.<sup>42)</sup> 그런데 ‘더 나은 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결과라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제자가 ‘완전해지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만 가능하다(26절). 이렇게 볼 때,

---

42) 그렇다면 마태복음 19:16-26은 많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신봉하는 두 단계 윤리(즉,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성직자들 및 수도사들’의 윤리)의 기반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G. Barth, “Matthew’s Understanding of the Law,” 95-100.

‘완전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동시에(21절) 하나님 나라(곧,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다(26절). 이처럼 ‘완전함’은 철저히 종말론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5:48과 마찬가지로(참조, 5:43-47), 사랑의 계명(레 19:18)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21절,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사실 ‘완전함’과 ‘사랑의 계명에 대한 성취적 이해’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우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마태는 사랑의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경향은 7:12과 22:40에서도 드러난다.

### 3.2. 토라의 요약(7:12; 22:34-40)

7:12에서 예수님은 소위 ‘황금률’이라는 절대적 원칙을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예수님의 이 교훈은 당대 어떤 다른 교훈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의 절대적으로 타인 중심적인 행동 원칙이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타인 중심적 행동 원칙에 중대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신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이다.’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 원칙은 자기부정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명료한 원리다. 이 교훈은 구약 전체가 제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황금률의 절대적인 타인 중심적 성격은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은 철저화의 진전을 보여 준다. 그런데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이다.’라는 선언만으로 이웃 사랑 계명과 구약성경 전체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란 어렵다. 우리는 이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22:34-40에 대한 다음 논의에서 발견하게 된다.

22:34-36에서 한 바리새인이 토라 중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22:37-40에서 예수님은 토라로부터 사랑의 두 계명(즉, 첫째 계명: 신 6:5, 하나님께 대한 사랑; 둘째 계명: 레 19:18,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인용하신다. 본 답변에서 예수님은 토라에서 보다 크고 중요한 계명이 있음을 인정하신다. 하지만 큰 계명에 대한 언급이 보다 작은 계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면 마태는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 하나’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교훈(5:19)을 통해 ‘큰 계명’에 대한 본 교훈과 보완적 균형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한편, 예수님의 답변의 마지막 부분(40절)은 학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 대상인 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이들 ‘두 큰 계명’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이 문제의 결정적인 열쇠는 ‘크레미누미’(κρεμίννυμι, ‘달려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한 상태이며,<sup>43)</sup> 따라서 어떤 결정적인 결론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무(D. J. Moo)는 긴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은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내린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 위에 있는 사랑의 우위성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서 사랑의 우위성을 말씀하신다.’<sup>44)</sup> 이들 두 계명은 분명 가장 큰 계명들이지만, 결코 다른 모든 계명들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계명들이 이 사랑의 두 계명들에 의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계명들의 유효성과 적용성이 이 사랑의 두 계명들에 의거해서 결정될 수는 없다.<sup>45)</sup>

43) 지금까지 제안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G. Bertram, “κρεμίννυμι,” *TDNT*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65), 919-921을 보라.

44) D. J. Moo, “Jesus and the Authority of the Mosaic Law,” 11.

45) R. Banks, *Jesus and the Law in the Synoptic Tradition*, 169;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tthew*, Sacra Pagina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316. 그럴 경우 이 구절은 레만(P. Lehmann)과 플레처(J. Fletcher)가 주창한 소위 ‘상황 윤리’를 지지하는 구절이 되지 못한다.

### 3.3. 예수님과 안식일(12:1-8, 9-14; 24:20)<sup>46)</sup>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토라 준수에서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열쇠 단락에서 제시된 예수님과 토라의 관계에 대한 마태의 입장이 안식일 관련 단락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마태의 토라 이해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3.3.1. 밀밭에서 안식일 논쟁(12:1-8)

본 단락(12:1-8)에서의 논점은 언뜻 안식일 계명의 해석 문제(예, ‘계제라 사바’, ‘칼 와호메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단락의 논점은 단순히 토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낫다는 점이 아니다.<sup>47)</sup> 오히려 그 논점의 초점은 다윗과 성전보다 더 큰 인물이 현존해 있다는 사실(3-4, 5-6절), 그리고 그분은 다름 아닌 안식일의 주(主)라는 사실(8절)에 모아져 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째 응답(3-4절)은 다윗이 토라를 어긴 한 사건(삼상 21:1-6)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논점은 다윗이 토라를 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구별된 지위 때문이라는 데 있다. 만일 다윗이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자들이 토라의 요구를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응답(5-6절) 역시 권위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일 토라에서도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46) 본 단락들에 대한 필자의 상세한 논의를 보려면, Y.-E. Yang, *Jesus and the Sabbath in Matthew's Gospel*, 139-241을 참조하라. 본 단락들에 대한 아래 논의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위의 책의 결론적 논점들만을 제시하고, 논점 관련 문헌 정보도 대부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47) 참조, D. M. Cohn-Sherbok, “An Analysis of Jesus’ Arguments concerning the Plucking of Grain on the Sabbath,” *JSNT* 2 (1979), 31-39.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 응답(7절)은 호세아 6:6을 인용하여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목표인 구속(救贖)을 제공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마태는 처음 세 응답을 연이어 제시함으로써, 이미 지극히 강력한 기독교론적 논점을 부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응답(8절)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로 선언함으로써, 앞의 답변들의 초점이 되어 왔던 예수님의 기독교론적 권위의 절정을 보여 준다.

### 3.3.2. 회당에서 안식일 논쟁(12:9-14)

본 단락(12:9-14)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랍비 문학에서 안식일 치유 활동 금지는 기정사실로 전제되고 있다(예, m.Shab. 14:3; 22:6). 다만, 당장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손 마른 상태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따르자면, ‘적법하지 않다’라는 대답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분의 답변은 ‘적법하다’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안식일에 짐승을 구조하는 것과 연관된 질문으로 시작된다(11절). 예수님의 질문은 눈앞의 바리새인들이 짐승을 구출하는 것을 허용했음을 전제한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12절 상)라는 질문은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을 그 고통에서 구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상관없이 ‘안식일의 주(主)’이신 자신의 권위를 기초로 안식일 관련

새 원리를 제시하신다. ‘따라서 안식일에 선하게 행하는 것은 적법하다’(12절 하). 안식일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참조, 7절), 안식일에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하는 것, 곧 ‘선하게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는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선하게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폐하는 행동이 아니며, 안식일 계명의 성취 결과로 제자가 따라야 하는 마땅한 행동 원리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主)로서 안식일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며, 또한 성취를 통해 드러난 원리를 따라 행동하신다(13절).

### 3.3.3. ‘안식일에도 말고’(24:20)

성전 파괴 직전에 유대 땅에 임할 위기 상황이 ‘안식일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교훈에서 마태만이 ‘안식일에도 말고’ 구절을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마태 공동체가 당시 안식일 계명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만일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안식일이라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허용했고, 따라서 안식일에도 피난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리고 마태 공동체도) 안식일에 당연히 피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첨가 구절은 안식일에 피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피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시사해 주는 것 같다. 따라서 단지 24:20에 근거하여 마태 공동체가 안식일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sup>48)</sup>

48) Contra R. Hummel, *Die Auseinandersetzung zwischen Kirche und Judentum in Matthäusevangelium*, 41.

### 3.3.4. 결론

12:1-14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안식일 성취는 5:17-20에 제시된 예수님의 교훈의 좋은 예(例)이다. 그리고 이 예는 위에서 살펴본 여섯 대조적 교훈들의 경우와도 잘 조화를 이룬다. 인자(人子)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안식일 성취는 토라의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연속성’과 ‘불연속성’ 두 요소를 공히 가진다. 연속성의 요소는 예수님의 구속(救贖)이 안식일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했다는 데서 발견된다. 한편 불연속성의 요소는 예수님의 성취 이후에는 안식일이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고, 그분의 성취에 의해 초월되었다는 데서 발견된다. 이제 제자들은 종말론적 안식(=구속)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12:5-6).

### 3.4. 토라와 전통(15:1-20; 23:1-36; 참조, 16:12; 19:17)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토라의 권위는 인정하시지만 그에 대한 서기관들의 해석 전통은 비판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몇몇 단락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문제의 단락들에 나타나는 토라와 서기관들의 해석적 전통에 대한 마태의 이해를 정리해 보려 한다.

#### 3.4.1.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23:2-3)

23:2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신다. 3-4절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모세의 자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토라를 해석하는 기능보다는, 회당에서 토라 자체를 낭독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토라를 전수해 주는

사회적 지위 및 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일 경우, 예수님의 다음 명령은 큰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일은 따라하지 마라’(3절 상). 이 명령에서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곧, 토라 해석)으로 이해할 경우, 그들의 가르침을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신 그분의 앞선 명령과 정면충돌을 일으킨다(16:6-12; 참조, 15:1-20). 하지만 2절의 ‘모세의 자리’에 대한 위의 이해를 받아들일 경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토라 해석이 아니라 그들이 낭독하는 토라 자체를 의미한다.<sup>50)</sup> 그럴 경우, 예수님의 명령은 토라에 대한 그분의 앞선 교훈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성취된’ 형태로 모두 지킬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5:19).

예수님의 명령의 첫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둘째 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일’(εργα)은 그들의 토라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른 행동을 공히 지칭하며,<sup>51)</sup>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의 토라 해석과 행동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해가 적절하다면, 본 단락에서 예수님은 토라 자체의 권위

49) M. A. Powell, “Do and Keep What Moses Says (Matthew 23:2-7),” *JBL* 114 (1995), 431.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자리’를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기능뿐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기능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안하지만, 그럴 경우 3절 상반절을 해석하는 데 난점이 있다. 아래를 참조하라.

50) M. A. Powell, “Do and Keep What Moses Says (Matthew 23:2-7),” 432; F. Thielman, *The Law and the New Testament. The Question of Continuity* (New York: Crossroad, 1999), 61. 한편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860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토라 해석’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수사학적 역설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참조, D. E. Garland, *The Intention of Matthew 23*, *NovTSup* 52 (Leiden: Brill, 1979), 46-55.

51) M. A. Powell, “Do and Keep What Moses Says (Matthew 23:2-7),” 432.

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다. 이처럼 예수님과 토라 사이의 연속성은 강조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토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적 전통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신다.

### 3.4.2. ‘장로들의 전통’(15:1-20)

15:1-20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한 반응으로서 ‘장로들의 전통’(=바리새적 토라 해석)<sup>52)</sup>을 비판하신다. 그분 비판의 핵심은 그들의 ‘전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르반’<sup>53)</sup> 조항에 대한 바리새적 활용 방법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출 20:12)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해석적 전통이 토라를 어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통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한다(3-6절). 11절, 18-20절에서는, 5:21-48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관심이 외적 행동 이면에 깔려 있는 내면세계에 돌려지고 있다. 그분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본 단락이 토라의 음식 규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어찌면 마태는 본 단락에서 음식 규례 문제를 의도적으로 직접 다루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sup>54)</sup> 그럼에도 마태복음에서 음식 규례 포기의 원칙은 이미 전제되고 있는 듯하다(참조, 11절).<sup>55)</sup> 그럴

52) D. Hill, *The Gospel of Matthew*, NCB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2), 250-251.

53) 참조, 마가복음 7:11; m.Ned.

54) 마가복음 7:19의 ‘모든 식물(食物)이 깨끗하니라.’라는 설명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음을 주목하라. 참조, R. Mohrlang, *Matthew and Paul*, 11;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tthew*, 233.

55) R. T. Franc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245; Pace G. Barth, “Matthew’s Understanding of the Law,” 90.

경우 마태에게 있어서 더럽힘에 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교훈은 그분의 토라 성취가 수반하는 불연속성에 대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예(例)로 보인다. 하지만 음식 규례에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이제 더럽힘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곧, 18절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기준)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와 진전을 수반하는 연속성을 갖는다.

### 3.4.3.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23:23)

23:23에서 예수님은 십일조와 관련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엄밀한 규정을 ‘버리지 말도록’ 지시하신다(참조, 레 27:30). 그들의 문제는 엄밀한 십일조 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중요한 율법 조항들인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린 데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적인 의를 행하는 것이 외적인 규례들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신다. 다만 여기서 십일조 관련 세부 전통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적극적인 명령인지 아니면 수사학적 양보인지는 명백하지 않다.<sup>56)</sup> 게다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을 기대하는 명령인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아무튼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토라 사이의 연속성은 전제되고 있다.

### 3.4.4. 나병환자 정결 규례(8:1-4)

‘나병’은 육체적으로 위험한 질병일뿐더러 제의적으로도 부정한 질병으로서, 일단 나병에 걸린 자는 사회에서 쫓겨나도록 되어 있었다. 신약에서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치유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반해, 나병에 대해서는 ‘깨끗케 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은 주목

56) 참조,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872-873.

할 만하다(10:8; 눅 17:14, 17).

나병환자의 신앙 고백적 요청(2절)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3절)은 즉각적이다. 예수님은 우선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부정환 나병환자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인데도(참조, 레 5:3), 예수님은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를 만지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토라 성취의 초월적 불연속성을 잘 예시해 준다. 한 마디의 말씀으로 그의 나병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sup>57)</sup>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참조, 레 13-14장)고 지시하신다(4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외적 정결 규례를 지키라고 지시하신 것은 15:1-20에 제시된 예수님의 교훈과 비교해 볼 때 놀랍다. 하지만 이 지시를 정결 규례 자체의 영속적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수님께서 정결 규례를 뛰어넘어 나병환자를 손으로 직접 만지신 행동은 이러한 판단을 지지해 준다. 단지 예수님은 여기서 나병환자가 속한 사회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조치로 그것의 효용성을 인정하신 것 같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시는 후대 제자들을 위한 규범적 성격보다는 한정된 사회 상황에 연관된 상황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는 마태의 의도 역시 그의 독자들을 위한 규범 제시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8)</sup>

---

57) 본 절의 마지막 어구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εις μαρτύριον αὐτοῖς)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위의 제안과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는 R. T. Franc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153; W. D. Davies and D.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I*, 16을 보라.

58) 이는 마태가 바울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다른 유사한 예들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성전 예물(5:23-24); 유월절 식사(26:17-18).

### 3.5. 결론

본 장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토라 자체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행동들이다. 2) 토라의 유효성은 자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개개 계명의 문자적 적용은 더는 기대되지 않는다. 3) 성취의 한 측면으로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과 그 내적 덕목들에 집중되고 있다. 4)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그 중요성에 있어서 모종의 우선성이 인정된다. 5) 사랑의 계명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구약성경의 다른 모든 계명들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6)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두 계명이 ‘더 나은 의’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더 나은 의가 수반하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들은 5:17-48과 관련하여 필자가 앞에서 내린 결론들이 마태복음 전체의 다른 율법 관련 구절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보여 준다. 마태복음 내의 그 어떤 구절도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5:17-48에 대한 필자의 결론들과 상충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한편으로는 앞의 결론들(예, 철저화, 내면화, 초월 등의 관점에서의 성취, 더 나은 의를 특징짓는 완전함)을 더욱 확증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가지 측면들(곧, 계명들 사이의 우월성, 예수님의 교훈에서 사랑의 계명의 두드러진 위치 등)을 추가해 준다.

## 4. 토라의 성취자 예수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마태의 토라 이해를 정리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

첫째, 열쇠 단락이 보여 주듯이, 마태는 예수님을 토라의 성취자로 제시한다. 이처럼 마태의 토라 이해는 철저히 기독교론적이다. 예수님은

토라가 궁극적으로 내다보았던 목표를 성취하셨고, 그 결과 토라의 원래 의도와 근본정신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는 토라와 연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성취는 필연적으로 토라 자체를 뛰어넘는 초월적 성격을 띤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취와 토라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토라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종말론적 긴장을 수반한다. 이 긴장은 예수님의 성취 결과 토라의 ‘기능’은 이미 전체적으로 철저히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토라의 ‘권위’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유지된다는 원리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토라 전체를 지극히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그 성취된 의미로 지키는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제자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것은 토라를 성취한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자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 결과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질적 차이는 의의 양적 차이도 가져오게 된다. 곧, 제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그 행동의 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마태는 이 ‘더 나은 의’를 ‘완전함’으로 연결하여 제시한다(5:48).

둘째, 열쇠 단락이 보여 주는 예수님의 토라 성취의 특성은 여섯 대조적 교훈들뿐 아니라 다른 토라 관련 단락들 모두에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마태복음 내의 그 어떤 구절도 열쇠 단락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취 특성과 상충되는 요소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토라 관련 구절들은 예수님의 성취 결과 내면화와 철저화의 진전 요소를 포함하는 연속성을 보여주며, 그 중 어떤 구절들은 토라의 문자 규정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뛰어넘는 불연속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처럼 다양한 성취적 현상을 마태의 토라 이해의 일관성 결여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열쇠 단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적절하다

면,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은 예수님의 토라 성취 자체의 특성 때문이며, 따라서 마태가 일관성을 결여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셋째, 마태와 마태 공동체는 아마도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마태와 그의 공동체에게 토라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 및 토라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제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향들(곧, 율법주의와 율법 경시론/폐기론)이 한 공동체 가운데 공존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마태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고 있다. 한편으로 마태는 단순히 토라를 있는 그대로 여전히 지키려는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성취의 불연속성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경고한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토라를 완전히 대체했으며 따라서 제자는 토라를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 경시론/폐기론에 대해서는 성취의 연속성을 부각함으로써 토라의 지속적 유효성을 강조한다.

넷째, 마태는 토라 전체가 성취되었음을 부각한다(5:18; 11:13). 실제로 마태는 도덕법과 의식법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 도덕법도 성취 결과 불연속성을 갖게 되고(예, 이혼 규정, 보복법), 의식법도 성취 결과 진전 요소를 포함하는 연속성을 갖기 때문이다(예, 정결 규례, 음식법, 안식일). 하지만 마태는 토라 안에 좀 더 중요한 것(내적인 것)과 덜 중요한 것(외적인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사랑의 계명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하거나 큰 계명들이 덜 중요한 계명들을 대체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다섯째, 예수님은 토라 자체는 폐하지 않지만, 토라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적 전통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시며, 자주 단호히 비판하신다(예, 12:7, 11-13; 15:3, 6; 23:3-4). 하지만 그 전통이 토라 자체와 충돌하지 않는 한 그 전통의 시행 자체를 금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23:23).

,  
 . 가  
 가 ,  
 가  
 (5:23)

. 가  
 가  
 .

< >

, , , , ,

**<Key Words>**

**Torah, the Gospel of Matthew, Jesus, fulfillmen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coherence**

\* 2011 2 25 , 2011 3 7 , 2011 3 14

### 참고문헌

- 양용의, 『예수와 안식일 그리고 주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서울: 이레서원, 2000.
- 양용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21-48의 대조적 교훈들에 나타난 예수와 율법,” 『신약연구』 4 (2006), 1-49.
- 양용의, “율법의 성취자 예수. 종말론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마태복음 5:17-20 연구,” 『교회와 문화』 19 (2007), 25-54.
- Banks, R., *Jesus and the Law in the Synoptic Tradition*, SNTSMS 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Barth, G., “Matthew’s Understanding of the Law,” G. Bornkamm, G. Barth, and H. J. Held, eds.,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in Matthew*, P. Scott, trans., London: SCM, 1963, 58-164.
- Bertram, G., “κρεμάννυμι,” *TDNT*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65, 915-921.
- Betz, H. D., *Essays on the Sermon on the Mou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Betz, H. D., *Sermon on the Mount*,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Charles, J. D., “Garnishing with the ‘Greater Righteousness’: The Disciple’s Relationship to the Law (Matthew 5:17-20),” *BBR* 12 (2002), 1-15.
- Cohn-Sherbok, D. M., “An Analysis of Jesus’ Arguments concerning the Plucking of Grain on the Sabbath,” *JSNT* 2 (1979), 31-41.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 Dalman, G., *Jesus-Jeshua: Studies in the Gospels*, P. L. Levertoff., trans., London: SPCK, 1929.
- Daube, D.,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Judaism*, London: Athlone Press, 1956.
- Davies W. D. and D.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3, Edinburgh: T. & T. Clark, 1988, 1991, 1997.
- Davies, W. D., "Matthew 5:17, 18," *idem*, *Christian Origins and Judaism*,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2, 31-66.
- Dibelius, M., "Die Bergpredigt (1937, 1940)," *Botschaft und Geschichte*, Tübingen: Mohr, 1953, 79-174.
- Foster, P., *Community, Law and Mission in Matthew's Gospel*, WUNT 2/177, Tübingen: J. C. B. Mohr, 2004.
- France, R. T., *Matthew-Evangelist and Teacher*, Exeter: Paternoster, 1989.
- France, R. T.,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NTC, Leicester: IVP, 1985.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 Garland, D. E., *The Intention of Matthew 23*, NovTSup 52, Leiden: Brill, 1979.
- Gerhardsson, B., *Memory and Manuscript: Oral Tradition and Written Transmission in Rabbinic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NU 22, 2nd ed., E. J. Sharpe, trans., Lund: Gleerup, 1964.
- Guelich, R. A., *Sermon on the Mount*, Waco: Word Books, 1982.
- Hagner, D. A., *Matthew 1-13*, WBC 33a, Dallas: Word Books, 1993.
- Hare, D. A. R., *Matthew*,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 Harrington, D. J., *The Gospel of Matthew*, Sacra Pagina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 Hill, D., *The Gospel of Matthew*, NCB,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2.
- Hübner, H., *Das Gesetz in der synoptischen Tradition: Studien zur These einer progressiven Qumranisierung und Judaisierung innerhalb der synoptischen Tradition*, Witten: Luther Verlag, 1973.
- Jeremias, J., *New Testament Theology. I. The Proclamation of Jesus*, J. Bowden, trans., London: SCM, 1971.
- Klostermann, E., *Das Matthäusevangelium*, HNT 4, 2nd ed., Tübingen: Mohr,

1927.

Lambrech, J., *The Sermon on the Mount: Proclamation and Exhortation*, GNS 14, Wilmington: Michael Glazier, 1985.

Loader, W. R. G.,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A Study of the Gospels*, WUNT 2/97, Tübingen: J. C. B. Mohr, 1997.

Luz, U., *Matthew 1-7*, W. C. Linss, trans., Edinburgh: T. & T. Clark, 1990.

M'Neile, A. H.,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Indices*, London: Macmillan, 1915.

Meier, J. P., *Law and History in Matthew's Gospel: A Redactional Study of Mt. 5:17-48*, AnBib 7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6.

Menninger, R. E., *Israel and the Church in the Gospel of Matthew*, American University Studies VII, Theology and Religion 162, New York: Peter Lang, 1994.

Mohrlang, R., *Matthew and Paul: A Comparison of Ethical Perspectives*, SNTSMS 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Moo, D. J., "Jesus and the Authority of the Mosaic Law," *JSNT* 20 (1984), 3-49.

Powell, M. A., "Do and Keep What Moses Says (Matthew 23:2-7)," *JBL* 114 (1995), 187-204.

Sand, A., *Das Gesetz und die Propheten: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Evangeliums nach Matthäus*, Biblische Untersuchungen 11,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1974.

Schlatter, A., *Der Evangelist Matthäus: Seine Sprache, sein Ziel, seine Selbständigkeit*, Stuttgart: Calwer Verlag, 1959.

Thielman, F., *The Law and the New Testament. The Question of Continuity*, New York: Crossroad, 1999.

Yang, Y.-E., "Jesus, Fulfilment and Law in Matthew 5.17-20: A Discussion Focusing on the Eschatological Dimension," M. A. dissertation

(London Bible College, 1992).

Yang, Y.-E., *Jesus and the Sabbath in Matthew's Gospel*, JSNTS 1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Zahn, T., *Das Evangelium des Matthäus*, Leipzig: Deicher, 1903.

## &lt;초록&gt;

## 마태복음과 토라

양용의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의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토라가 차지하는 역할은 교회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신약성경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단락들이 상당히 풍부하다. 그런데 그 단락들 중 결정적으로 중요한 몇 단락들이 마태복음에 나타난다. 특히 마태복음 5:17-20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 단락이다.

5:17에서 마태는 토라에 부여된 예언적 기능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선언한다. 이 성취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성취의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긴장을 조성한다. 5:18에 따르면, 토라는 구원사의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데, 그 끝은 예수님의 인격과 지상 사역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 5:19에 따르면, 토라를 예수님의 성취에 비추어 지극히 세부사항까지도 지키느냐 제쳐두느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교훈은 율법 경시론자들에 대한 경고 기능을 한다. 5:20에서 마태는 제자들이 소유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더 나은 의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교훈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기능을 한다.

여섯 개의 대조적 교훈들(5:21-48)과 다른 토라 관련 단락들(7:12; 8:1-4; 12:1-14; 15:1-20; 19:16-21; 22:34-40; 23:1-36; 24:20; 등)은 위의 열쇠 단락에 대한 필자의 결론들을 일관성 있게 확증해 준다. 또한 이 단락들은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나은 의가 토라의 의의 기준을

양적으로 확장시켜 줄뿐더러 더 높고 깊은 질적 향상도 가져다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끝으로, 마태는 이 단락들 중 몇몇에서 사랑의 계명에 최고의 지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마태는 이 사랑의 계명들이 토라 전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Abstract>

## Torah in the Gospel of Matthew

Prof. Yong-Eui Yang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The role that Torah plays in Christian theology and practice is an old and persistent question in the church history. There are various passages in the New Testament where the issue is dealt with.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Gospel of Matthew provides some crucial passages of them. The key passage (Mt. 5:17-20), in particular, is undoubtedly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Christia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orah.

In Mt. 5:17 Matthew assigns Torah a prophetic role which is now fulfilled by Jesus. This fulfillment includes the elements of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and this characteristic of fulfillment creates a genuine tension. According to Mt. 5:18 Torah has its validity for a limited period of salvation-history, the end of which has already been inaugurated by Jesus' first eschatological coming but awaits its consummation in his second coming. According to Mt. 5:19 to obey or to set aside the slightest details of Torah seen in the light of Jesus' fulfillment will determine one's status in the consummated kingdom—a warning against an antinomian tendency. In Mt. 5:20 the greater righteousness which the disciples are expected to possess is presented

as the criterion for entering the consummated kingdom—a warning against a legalistic tendency.

The six antitheses of Mt. 5:21-48 and other Matthean Torah-related passages (7:12; 8:1-4; 12:1-14; 15:1-20; 19:16-21; 22:34-40; 23:1-36; 24:20; etc.) confirm my conclusions above regarding the key passage. These passages also show that the greater righteousness involves not only extending the scope of Torah but also proceeding towards the higher and deeper level of godly life, and that the love commandment is the centre of the greater righteousness, but it is by no means all that it entails.

